

## 학생의 인권감수성 분석과 학교인권교육의 방향

- 서귀포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김선필(제주대학교 박사과정) · 염미경(제주대학교)\*

### 목 차

- I. 문제제기
- II. 논의의 배경과 연구방법
  - 1. 논의의 배경과 연구 쟁점
  - 2. 연구 대상과 방법
- III. 연구 결과 및 분석
  - 1. 학생의 인권감수성
  - 2. 인권 항목에 따른 인권감수성
- IV. 맺음말: 학교인권교육의 방향

이 논문에서는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을 통해 학교인권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향후 인권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질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 소재 5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88명이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먼저 서귀포시 고등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행동영역인 책임지각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문계 학생보다는 전문계 학생,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그리고 성적이 중위권 이상인 학생보다는 하위권 학생의 인권감수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고, 인권교육의 경험 유무 또한 학생의 인권감수성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권항목별로 인권감수성을 살펴본 결과, 학생들 자신과 관련된 인권항목에서는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자신과 무관한 인권항목에서는 인권감수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들 사이에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도 무방하다는 의식이 팽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에 기반해 향후 학교인권

\* 교신저자(mgyeum@jejunu.ac.kr)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먼저 인권의 행동적 영역에 대한 교육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전문계 학생과 남학생 그리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신의 권리보다 타인의 권리 그리고 소수자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적 영역의 인권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인권의식,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고등학생, 서귀포시**

## I. 문제제기

세계인권선언은 인류가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항에서는 모든 국가의 국민들과 국가들이 모든 수준의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의식을 신장시키는 노력을 할 것을 권장한다. 세계인권선언은 가장 권위 있는 국제 규범 기준으로 평가되지만 그 형태가 '선언'이기에 모든 나라를 강제하는 구속력이 없는데, 이에 UN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국가가 명시적으로 의무화 할 수 있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 특히, UN에서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인권교육 10개년 계획에 따라 각국이 국가인권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권고·요청하였다(박성혁, 2001). 이러한 움직임을 배경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인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인권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교인권교육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임용수(1994), 구정화(1997), 박성혁(2001), 박용조(2003), 김원금(2007), 박길자(2008), 김자영(2011)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인권교육의 현실은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연구에서는 그동안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주로 인지적인 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인권교육이 주로 도덕과와 사회과에서 다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교사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이 편협하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구정화, 2009, p.7; 문용린 외, 2002, p.57). 또한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인권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 학교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학교인권교육의 한계로 지적한다(박진, 2002; 심정보, 2002; 류지현·허창영, 2008, p.179). 따라서 학생들에게 인권 관련 가치를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권 친화적 학교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pp.145-147; 국가인권위원회, 2011, pp.261-263; Lister, 1991, pp.245-255).

대체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과 가치·태도, 기능, 행동, 감수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인 동시에, 인지·정의·행동 영역 전반의 인권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활동이라고 정의된다. 이때 인권의식은 인권 지식과 인권의 옳음에 대한 신념을 갖고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인권판단력, 인권 침해 상황 속에 놓인 타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불편함이나 괴로움, 분노 등을 느끼는 감정을 의미하는 인권감수성, 그리고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참여하려는 의지인 인권행동의사로 구성된 복합적인 태도이다(김자영, 2011, p.57). 따라서 인권교육에서는 인권지식과 함께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관된 인권문제에 대한 자각과 공감, 존중과 관련된 인권감수성, 그리고 이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행동의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김자영, 2011, p.64; 구정화, 2009, p.7; 구정화 외, 2004). 특히, 공교육에 의한 인권교육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인권의 중요성과 보편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행동양식을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류지현·허창영, 2008, p.177).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학생의 인권감수성을 살펴봄으로써 공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의 한계와 학생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논의의 배경과 연구방법

### 1. 논의의 배경과 연구 쟁점

이 논문은 인권의식, 인권감수성, 그리고 인권교육 간의 관계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인권의식이란 인권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감정 혹은 견해나 사상을 말하고,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의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인권의식 관련 연구에서 논의된 의식은 사회심리학의 태도에 가깝다(김자영, 2012, p.36). 태도는 우리들의 행동의도, 감정 그리고 신념에서 보여주는 어떤 사물 혹은 사람에 대한 호, 불호의 평가적 반응으로 정의되며, 태도는 인지, 감정, 그리고 행동의도를 포함한다(홍성열, 2003, p.79). 따라서 인권의식은 인권에 대한 인지, 인권

에 대한 감정, 인권 행동의도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동안의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지의 측면, 특히 인지발달론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김한솔, 2013, p.92).

이러한 인권의식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형성되는데, 특히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요인을 비롯해,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의 경험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형성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인권의식 양상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인권의식 관련 연구들에서는 인권의식을 인권교육의 결과로서 인권문제에 직면했을 때 일어나는 일련의 심리적 과정으로서 인권감수성(구정화, 2009, p.7; 안경환, 2004; 국가인권위원회, 2002, p.11)과 태도의 형성에 주목한다(김자영, 2011, pp.64-65).

이와 관련해,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과정 요소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문용린(2002)과 문미희(2006)의 연구가 주목할 만한데, 이들은 인권의식을 인권감수성, 인권판단력, 인권 동기화, 인권 행동 실천력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인권감수성은 특정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행동을 인권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고, 행동에 책임감을 느끼는 능력이며, 인권판단력은 인권 문제에서 어떤 행동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권동기화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며, 인권 행동 실천력은 여러 장애 요소에도 불구하고 인권옹호 행동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실천력을 말한다(김한솔, 2013, p.92; 문용린, 2002; 문미희, 2006). 이에 대해 김자영(2012)은 개인의 자아 강도나 인내심 같은 성격적 특징까지 인권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인권의식이 인권판단력, 인권감수성, 인권행동의사로 구성되어있다고 보고 인권의식을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수호하려는 태도로 정의한다<sup>1)</sup>. 이 논문은 인권에 관한 김자영의 연구(2012)가 지닌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인권의식에 대한 연구는 초반에는 인권에 관한 지식을 묻거나 인권을 옹호하는지에 대한 여부로 인권의식을 측정하였으나 최근에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으로 확장되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 인권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말하는 인권판단력을 넘어서 인

1) 김자영(2012)에 의하면, 인권판단력은 기본적 인권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문제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의미하고, 인권감수성은 인권문제가 개입된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능력이며, 인권행동의사는 인권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참여하려는 의지이다(김자영, 2012, pp.53-54).

권감수성을 중심으로 인권의식에 접근하고자 한다.

인권에 대한 강조는 문화적 차이들을 수용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이해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욕구 및 동기인 감수성과 연결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감수성은 인권 문제 상황에서 그 상황을 지각해 해석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를 갖게 되는 심리적 과정까지를 포함하며(문용린, 2002), 자신과의 차이를 자신과 다르지만 동등하게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을 지각하고 해석해 대상과의 차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인권감수성은 인권 또는 인권의식 개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권의식에 관심을 가지되, 특히 인권감수성 요소에 주목한다.

대체로 인권감수성은 상황지각, 책임지각, 결과지각 영역으로 구분되고, 상황지각은 인권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해석 능력, 결과지각은 어떤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책임지각은 인권에 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각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의지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pp.11-12).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인지·정서·행동적 영역을 교육시키는 활동이므로 인권교육도 결국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다(이주은, 2012, p.18; 국가인권위원회, 2002). 위에서 분류한 인권감수성의 세 영역 중에서 상황지각은 인권교육 영역에서 인지적 영역, 즉 인권에 대한 지식 습득에, 결과지각은 정서적 영역, 즉 인권 존중의 가치 및 태도 형성에, 그리고 책임지각능력은 행동적 영역, 즉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의 함양 및 행동에의 참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권감수성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등학생용 인권감수성 검사 도구(국가인권위원회, 2002)를 사용해 학생의 인권감수성, 좀 더 구체적으로 인권감수성의 하위 영역인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2002, 2008)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2008)는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경찰·군인·교정공무원·일반 행정공무원·교사·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을 시도하였다.

인권의식 또는 인권감수성 관련 연구들과 관련해, 이승미(1999), 국가인권위원회(2002), 조현민(2003), 박봉규(2007), 김도환(2008), 김지호(2011) 등의 연구에서는 인권의식이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먼저 이승미(1999)는

연령 요인을 중심으로 인권의식의 발달 차이에 주목해 연령에 따라 인권의식이 발달하며 고등학생 시기가 인권의식이 자신을 넘어 타인으로 확장되는 기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인권의식이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공동체와 사회의 관점을 수용하고 인권침해의 희생자에게 정서적인 공감을 보이기 시작하고 인권교육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가 고등학생 시기라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권감수성 검사 도구를 개발해 학생의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연구에서는 인권감수성에 대한 성별 요인의 영향에 주목했는데, 중학생과 대학생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인권감수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조현민(2003)은 성별과 학년, 계열(인문계·실업계), 인권교육 경험 여부 요인들에 따른 학교에서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와 인권 필요성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면서 이들 요인이 인권 항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박봉규(2007)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 출생순위, 경제수준에 따른 인권의식에서의 차이에 주목하였는데, 분석 결과 출생 순위에 따른 인권의식 차이는 거의 없었고 성별과 경제수준에 따른 인권의식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수준에서는 경제수준이 보통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봉규(2007)의 연구와 유사하게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정치과목 이수 여부, 부모의 소득과 학력 요인을 설정한 김도환(2008)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은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치과목 이수 여부와 부모의 소득 및 학력 요인은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호(2011)도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주목하는데, 그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을 분석하였는데, 연령, 학력, 근무경력, 설립연도, 입소정원, 인권교육 담당 유무 요인들 중에서 학력이 인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별과 인권교육 경험 여부와 함께 계열과 성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심태진, 2011), 인권존중의 태도를 갖추게 하며(국가인권위원회, 2011), 인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시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체의 교육적 노력이다(Amnesty International, 1996, p.14; UNESCO, 1974, 제1조; UN, 1994, 제2조; 이용교, 1998; 국가인권위원회, 2004, 2011;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07;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발의안, 2011.3.13, 제2조). 인권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인권

에 대한 지식, 가치·태도, 기능, 행동 등 인지·정서·행동적 영역을 골고루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학생들이 인권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 존중의 가치 및 태도를 형성하며,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함양하고, 실제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다. 이러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인지적 영역, 인권존중의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는 정서적 영역 그리고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을 함양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2)</sup>. 그동안 이루어진 인권교육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주로 인권교육의 정의와 내용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었으며, 많은 연구들은 현재의 인권교육의 대부분이 지식 전달 위주 교육에 편중되어 있어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김민경, 2007; 김희정, 2005; 박상준, 2003; 박영진, 2006; 오승윤, 2011; 이주은, 2012; 전미숙, 2011).

인권교육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 판단하는 활동<sup>3)</sup>이 교육평가이다(차경수·모경환, 2008, p.337). 그러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평가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sup>4)</sup>. 이는 인권교육이 정규 교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여러 교과<sup>5)</sup>에 분산되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교육 평가 도구와 관련해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2002)가 주목할 만하다. 국가인권위원회(2002)는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분석해 인권교육의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마찬가지로, 이 논문에서도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에 주목

2) 블룸(Bloom, 1956), 크래스웰 등(Krathwohl et al., 1964), 해로우(Harrow, 1972) 등은 학교 현장에서 추구하는 인권교육의 목표를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 정서적 영역(affective domain), 운동 기능적 영역(Psychomotor domain)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이 논문에서도 이같은 영역 분류를 수용해 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알아본다.

3) 교육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에 대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이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구, 교재 등을 개선하고, 학생을 선발하며, 교육에 대한 책임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교육평가를 통해 학생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준비를 위한 학습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성태제, 2010, pp.30-31), 이를 토대로 교수·학습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4)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연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 연구(2008)인데, 이 연구는 공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이 논문은 학생,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2011, p.64)는 인권을 다루는 교과를 분석하기 위해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실과/가정·기술, 체육과로 한정하였다.

한다<sup>6)</sup>. 인권교육 평가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연구로 인권교육과 인권의식 및 인권감수성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 문용린(2003)과 이해원 외(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인권이라는 가치를 느끼고 인식하고 체험하는 교육은 그것의 효과, 즉 교육목표의 달성정도를 쉽게 보여줄 수 없지만 인권교육 참여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인권의식을 확장시킬 수는 있다. 이때 인권의식은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과 폭력에 대해 가지는 민감한 감수성을 의미하며, 인권교육은 바로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이해원 외, 2010, p.151; 문용린, 2003)<sup>7)</sup>. 따라서 이들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 논문에서는 인권감수성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권의식 수준을 알아보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학교인권교육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2. 연구 대상과 방법

이 논문은 학생의 인권의식을 인권감수성 수준을 중심으로 알아봄으로써 학교인권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공동체와 사회의 사고를 수용하고 인권침해 희생자에게 정서적인 공감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고등학생, 특히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sup>8)</sup>. 구체적인 조사 지역은

- 
- 6) 인권감수성 검사 도구를 이용해 각 인권항목별 학생의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2002)가 유일하였다. 비록 이 연구가 2002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참신함이 떨어질 수 있으나, 지난 10여년의 기간 동안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수준의 변화를 읽어볼 수 있으며, 공주지역과 서귀포지역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을 상호 비교할 수 있다는 측면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 7) 이와 관련해, 문용린(2003)은 인권의식을 도덕성의 발달과 관련짓고 인권옹호 행동을 도덕적 행동의 하나로 간주해 도덕성과 도덕적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기제를 빌어 설명하였는데,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의 세 가지 하위개념으로 구분해 인권감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였다.
- 8) 기존 연구들에서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연령이다(Branson and Torney-Purta, 1982). 연령의 증가에 따른 인권의식의 변화를 분석한 국내 연구로 주목할 만한 연구로 이승미의 연구(1999)가 있다. 이승미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인권의식 차이는 거의 없는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공동체와 사회적 측면으로 고려하고 인권침해의 희생자에게 정서적 공감을 보인다(이승미, 1999).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임시생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대신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귀포지역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제주시보다 모집단 규모가 작아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 논문은 서귀포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수집된 질문지 중에서 성실하게 응답한 188명의 질문지만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자료 수집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서귀포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는 10곳이고,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총 5,742명이며, 1학년은 2,091명, 2학년은 1,873명, 3학년은 1,778명이다. 이 논문의 조사 시점은 2011년 1학년이 2학년이 된 2012년 4월 현재이며, 총 2,091명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 대상 집단은 층화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사용해 추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귀포지역 고등학교를 남학교·여학교·남녀공학으로 나누면, 남학교 3개, 여학교 3개, 남녀공학 4개교가 있다. 이 가운데 남학교는 885명, 여학교는 802명, 남녀공학은 404명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 모집단의 수 2,091명과 거의 동일한 수이며, 남학교와 여학교는 인문계, 남녀공학은 모두 전문계 고등학교이다.<sup>9)</sup> 이 논문에서는 조사대상 표본을 모집단의 10% 정도인 200명으로 하고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에 비례 할당하여 남학교와 여학교의 경우 각각 2개 학급, 남녀공학의 경우 4개 학급을 선정하고<sup>10)</sup>, 여기서 남학교는 총 70명, 여학교는 총 75명, 남녀공학은 85명으로 총 230명<sup>11)</sup>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집중적인 조사는 2012년 4월에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42명의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188명의 질문지<sup>12)</sup>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학생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학생의 계열(인문계와

9) 학급당 학생 수는 남학교·여학교의 경우 약 35명(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 1,687명/ 1학년 학급 수 48학급), 남녀공학의 경우 약 10명(전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 404명/ 1학년 학급 수 41학급)으로 나타났다.

10) 지정 학교와 학급은 난수표를 사용해 선정하였다(Earl Babbie, 2002, p.257). 이에 따라 남학교는 2개 학교가 선정되어 각 학교당 1개 학급이 배정되었고, 여학교는 1개 학교가 선정되어 2개 학급이 배정되었다. 그리고 남녀공학은 2개 학교가 선정되어 각 학교 당 2개 학급이 배정되었다.

11) 학교별 학생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해당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의 차이 때문이며, 남녀공학의 학생 수가 많아진 것은 남녀공학의 각 학교별 학급당 학생 수의 편차가 큰 것에서 기인한다.

12) 불성실하게 답변을 한 학생들은 남학교 6명, 여학교 3명, 남녀공학 33명이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조사 대상 학생은 남학교 64명, 여학교 72명, 남녀공학 52명이다.

전문계)<sup>13)</sup> · 성별 · 성적(상·중·하)<sup>14)</sup>, 인권교육 경험 등을 설정해 이들 요인이 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인문계’는 136명(72.3%), ‘전문계’는 52명(27.7%)이었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105명(55.9%), ‘여학생’이 83명(44.1%)이었으며, 성적은 ‘상’ 47명(25%), ‘중’ 108명(57.4%), ‘하’ 33명(17.6%)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교육 경험에서는 ‘없다’ 29명(15.4%), ‘있다’ 53명(28.2%), ‘모르겠다’ 106명(56.4%)<sup>15)</sup>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구분	응답범주	빈도(%)
계열	인문계	136(72.3)
	전문계	52(27.7)
성별	남자	105(55.9)
	여자	83(44.1)
성적	상	47(25.0)
	중	108(57.4)
	하	33(17.6)
인권교육 경험	없다	29(15.4)
	있다	53(28.2)
	모르겠다	106(56.4)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권감수성 관련 질문들은 국가인권위원회(2002)가 개발한 인권감수성 검사 도구 중 고등학교용 인권감수성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에는 각기 다른 인권항목이 담긴 에피소드 10개를 제시하였으며, 인권항목에는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그리

13) 이 논문의 분석 대상 모집단, 남학교와 여학교는 인문계, 남녀공학은 전문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를 구분하는 하나의 방식인 남학교·여학교·남녀공학에 따른 학생의 특성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14) 김지호(2011)의 연구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력 요인을 이 논문의 조사 대상인 학생 상황에 맞게 성적으로 대체시킨 것이다.

15) 인권교육 경험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과반수가 넘는다는 것은 학교에서 인권교육활동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심태진, 2011, p.53).

고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사생활권, 청소년 노동권,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환경권,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질문은 한국 상황에서 의미 있는 딜레마 가운데, 연령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발달 및 이해도를 고려해 선정한 것들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pp.19-20). 각 인권항목에 따른 질문은 상황지각과 결과지각 그리고 책임지각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와 짝을 맞추어 인권과 무관한 가치를 나타내는 질문을 포함시켰다<sup>16)</sup>. 이렇게 하여 인권감수성 검사를 통해 상황지각과 결과지각 그리고 책임지각 각각의 수준을 비롯해 인권감수성 전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12.0로 분석하였고, t-검정(t-test)과 일원 분산분석(ANOVA) 방법으로 산출한 집단 간 평균 차이를 중심으로 학생의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에 주목한다.

### Ⅲ. 연구 결과 및 분석

#### 1. 학생의 인권감수성

조사 대상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평균 점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고등학생들의 인권감수성 전체 점수는 2.29점으로 낮았고, 인권감수성 항목별로 살펴볼 때도 상황지각 2.36점, 결과지각 2.40점, 책

16) 질문지에서 인권항목별 문항의 신뢰도는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3문항으로 Cronbach's Alpha=.647, 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가 3문항으로 Cronbach's Alpha=.757,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가 3문항으로 Cronbach's Alpha=.767,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가 3문항으로 Cronbach's Alpha=.542, 사생활권이 3문항으로 Cronbach's Alpha=.665, 청소년 노동권이 3문항으로 Cronbach's Alpha=.749,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이 Cronbach's Alpha=.807, 환경권이 Cronbach's Alpha=.764,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이 Cronbach's Alpha=.626,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3문항으로 Cronbach's Alpha=.769, 인권항목별 30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4로 모든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인권감수성 요소별 문항의 신뢰도는 상황지각이 10문항으로 Cronbach's Alpha=.641, 결과지각이 10문항으로 Cronbach's Alpha=.705, 책임지각이 10문항으로 Cronbach's Alpha=.577, 그리고 인권감수성 총 30문항에 대한 신뢰도도 Cronbach's Alpha=.864로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가각 2.12점으로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책임지가각이 다른 영역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인권교육의 내용 체계를 분석한 국가인권위원회(2011)는 학교인권교육의 내용 체계에서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인권문제의 합리적인 해결과 참여’ 내용은 상대적으로 많다고 분석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p.114). 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교육이 교육 당국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교육의 성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 정서적, 행동적 영역보다 교육의 성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는 인지적 영역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표 2> 인권감수성 수준

구분	평균
인권감수성 전체	2.29
상황지가각	2.36
결과지가각	2.40
책임지가각	2.12

한편, 기존 연구들과 서귀포지역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 분석 결과를 비교해 정리하면 <표 4><sup>17)</sup>와 같다. 이 논문의 조사 대상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은 2.29점이고, 국가인권위원회(2002)에서 조사한 초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은 1.88점, 중학생은 2.46점, 고등학생은 2.45점, 대학생은 2.59점, 성인은 2.69점으로 나타났다. 조운정(2006)이 조사한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은 2.26점, 김덕진(2009)이 조사한 초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은 2.60점, 이상희(2007)가 조사한 중학생의 인권감수성은 3.46점, 박재숙(2008)이 조사한 중학생의 인권감수성은 2.22점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2002)가 조사한 초등학생과 이상희(2007)가 조사한 중학생을 제외한 연구들에서 분석한 학생의 인권감수성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다소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이 논문과 같이 고등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국가인권위원회(2002)와 조운정(2006)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의 인권감수성은 2.45점과 2.26점으로 나타나,

17) 국가인권위원회(2002)에서는 조사 대상별 인권감수성 수준을 각 에피소드에 대한 평균만 밝혔을 뿐, 조사 대상별 총점에 대한 평균은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각 에피소드에 나타난 평균에 대한 평균을 구하여 각 조사 대상별 전체 평균을 구했으며, 인권감수성의 총점을 밝힌 다른 연구들의 경우 5점 점수로 환산하였음을 밝혀둔다.

이 논문의 조사 대상인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 2.29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또한 이 논문의 조사대상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은 공주시 및 경기도의 고등학생, 그 외 지역의 초·중학생과 성인의 인권감수성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은 서귀포지역 또는 고등학생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대상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8)</sup>

<표 3> 이 논문과 선행 연구의 인권감수성

연구	조사대상	연구지역	인권감수성
이 논문의 조사 결과	고등학생	서귀포지역	2.29
국가인권위원회 (2002)	초등학생	논산시	1.88
	중학생	논산시	2.46
	고등학생	공주시	2.45
조윤정(2006)	고등학생	경기도	2.26
김덕진(2009)	초등학생	경상남도 C시	2.60
이상희(2007)	중학생	과천시	3.46
박재숙(2008)	중학생	대구광역시	2.22

다음에서는 조사 대상 학생의 특성별 인권감수성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 먼저 학생의 계열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와 전문계 학생 간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인권 항목별로 이들 간 t-검정을 실시해 분석한 결과, 인문계와 전문계 학생 간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영역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표 4> 참조).

<표 4> 계열과 인권감수성

	인문계	전문계	t값
인권감수성	2.56	1.59	6.91***
상황지각	2.61	1.69	5.96***
결과지각	2.72	1.56	6.90***
책임지각	2.36	1.51	5.84***

\*\*\*  $P < .001$

18) 이와 관련해, 앞으로 인권감수성에 대한 전국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인문계 학생의 인권감수성의 평균 점수는 2.56점, 전문계 학생은 1.59점으로 나타나, 인문계 학생의 인권감수성이 전문계 학생의 인권감수성보다 높았다. 따라서 전문계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권감수성에서 상황지각 영역을 보면 인문계의 평균이 2.61점인 반면, 전문계의 평균은 1.69점으로 매우 낮았다. 그리고 결과지각 영역은 인문계의 평균은 2.72점, 전문계의 평균은 1.56점이었고, 책임지각 영역은 인문계의 평균은 2.36점, 전문계의 평균은 1.51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문계 학생은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영역 모두에서 인문계 학생에 비해 인권감수성 수준이 낮았는데, 이는 인지·정서·행동적 영역 모두에서 전문계 학생에 대한 집중적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이에 반해, 인권감수성의 책임지각 점수가 상황지각이나 결과지각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학교에서 행동적 영역의 인권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성별에 따른 인권감수성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인권감수성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p < .001$ )(<표 5> 참조).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남학생의 인권감수성은 2.09점, 여학생의 인권감수성은 2.54점으로 인권감수성 전체 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들(김도환, 2008; 박봉규, 2007; 이세민, 2009; 조현민, 2003)과 유사한 결과로, 인권감수성 수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인권 관련 문제를 인권 상황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상황지각 능력, 문제 상황에서 행동이 자신과 타인 등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결과지각 능력, 이를 실제 행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책임지각 능력 등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성별에 따른 인권감수성

	남자	여자	t값
인권감수성	2.09	2.54	-3.24***
상황지각	2.21	2.54	-2.19*
결과지각	2.10	2.78	-4.14***
책임지각	1.97	2.32	-2.49*

\*  $P < .05$ , \*\*\*  $P < .001$

한편, 학생의 성적별로 인권감수성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인권감수성 전체 점수로 보면 상, 중, 하 성적별로 학생의 인권감수성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p < .05$ ), 인권감수성의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상황지각 영역만 상, 중, 하 성적별로 학생의 인권감수성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 $p < .01$ ), 결과지각과 책임지각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p > .05$ ).<sup>19)</sup>(<표 6> 참조)

<표 6> 성적에 따른 인권감수성

	상	중	하	p값
인권감수성	2.37	2.38	1.90	0.034*
상황지각	2.49	2.46	1.83	0.005**
결과지각	2.47	2.49	2.00	0.099
책임지각	2.16	2.19	1.85	0.203

\*  $P < .05$ , \*\*  $P < .01$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적이 상에 속하는 학생 집단의 인권감수성 점수는 2.37점, 중에 속하는 학생 집단은 2.38점이며, 하에 속하는 학생 집단은 1.90점으로 나타났다. 중위권 이상 학생 집단의 인권감수성은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에 하위권 학생 집단이 인권감수성 수준은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권감수성의 세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상황지각에서는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 집단이 2.49점, 중위권인 학생 집단이 2.46점, 하위권인 학생 집단이 1.83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이 인권감수성의 전체 점수 및 세부 영역별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인권에 대한 인지적 영역의 차이, 즉 하위권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지식을 상대적으로 적게 갖고 있기 때문으로 인권감수성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인문계 학생이 전문계 학생에 비해, 그리고 성적이 높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제주도지역의 고등학교 입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즉, 제주도지역의 경우 성적별로 평준화지역 일반 고등학교(인문계)와 비평준화지역 일반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

19) 인권 항목에서 결과지각의 p값은 0.099, 책임지각은 0.203으로, 성적으로 본 상, 중, 하 집단 간 세부 영역별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지각과 책임지각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학교(전문계) 간 차이가 두드러지고, 성적의 좋은 학생들은 인문계고등학교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전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1).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인권교육 경험에 따른 인권감수성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인권교육 경험 유무별로 인권감수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권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 그리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 간 인권감수성 전체와 세부 영역별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표 7> 참조).

<표 7> 인권교육경험에 따른 인권감수성

	있다	없다	모르겠다	p값
인권감수성	2.18	2.52	2.21	0.135
상황지각	2.29	2.54	2.29	0.317
결과지각	2.22	2.71	2.30	0.071
책임지각	2.02	2.31	2.05	0.251

이처럼 인권교육 경험이 인권감수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 간에는 정(正)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기존 연구들(조윤정, 2006; 박재숙, 2008)과는 다른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일정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이상희(2008, p.84)와 학교에서 받은 인권교육이 4회 미만인 학생이 92.3%로 나왔다고 분석한 심태진의 연구(2011, p.53)와 학교인권교육이 단발적인 특장이나 행사로 이루어지는 학교인권교육을 비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2011, vi)에 기반해서 볼 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이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이벤트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인권교육 경험

	항목	비율(%)
이 논문의 조사 결과	없다	15.4
	있다	28.2
	모르겠다	56.4
국가인권위원회(2011)	없다	30.9
	있다	69.1



이와 관련해, 앞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권교육 경험에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조사 대상 학생의 56.4%로,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권교육으로 인식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2011)에서는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전국 고등학교 학생(제주 제외)의 비율이 69.1%인데 반해(국가인권위원회, 2011, p.192), 이 논문의 조사에서는 28.2%에 지나지 않았는데(<표 8> 참조), 이는 서귀포 지역 고등학교의 인권교육 상황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 2. 인권 항목에 따른 인권감수성

다음으로 조사 대상 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에피소드를 사용해 각 인권 항목별로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를 보면, 인권 항목들 중에서 인권감수성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청소년 노동권으로 3.28점이었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3.25점,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는 3.07점, 환경권은 2.41점,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는 2.21점,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은 2.20점, 평등권·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2.12점, 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는 2.01점, 사생활권은 1.33점,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은 1.07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 노동권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은 학생들이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식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인권감수성의 평균 점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환경권으로부터 최하위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이르는 인권항목 분포도 특기할 만한 것이다.

<표 9> 인권항목별(에피소드) 인권감수성

인권 항목	연구	조사지역	평균	순위
평등권,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감원 대상)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서귀포지역	2.12	7
	국가인권위원회(2002)	공주시	1.96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김씨의 구속)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서귀포지역	2.01	8
	국가인권위원회(2002)	공주시	3.20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장애인 학교)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서귀포지역	2.21	5
	국가인권위원회(2002)	공주시	2.39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자녀교육)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서귀포지역	3.07	3
	국가인권위원회(2002)	공주시	3.13	

인권 항목	연구	조사지역	평균	순위
사생활권(CCTV)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서귀포지역	1.33	9
	국가인권위원회(2002)	공주시	1.74	
청소년 노동권(아르바이트)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서귀포지역	3.29	1
	국가인권위원회(2002)	공주시	2.30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진료자 명단)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서귀포지역	2.20	6
	국가인권위원회(2002)	공주시	2.27	
환경권(공장 건립)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서귀포지역	2.41	4
	국가인권위원회(2002)	공주시	2.41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황판사의 고민)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서귀포지역	1.07	10
	국가인권위원회(2002)	공주시	1.84	
이주노동자의 노동권(려씨의 임금)	이 논문의 분석 결과	서귀포지역	3.25	2
	국가인권위원회(2002)	공주시	3.29	

이 논문에서 제시한 인권 항목들(환경권,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 평등권·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권,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의 내용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 또는 개인이 희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다. 그런데 소수 또는 개인에 대한 억압의 정도가 점차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인권항목의 순서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sup>20)</sup> 따라서 자신과 무관한 대상의 경우 공익을 위해서라면 소수가 희생되어도 무방하다는 의식이 학생들 사이에 팽배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21)</sup>

이러한 이 논문의 분석 결과는 고등학생의 인권의식을 인권에 대한 권리성 인식과 인권에 내재된 의무성 인식으로 나누어 파악한 결과, 권리성의 수가 의무성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박봉규(2007)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타인에 대한 의무보다 자신의 권리를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인권의식을 일정 정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봉규, 2007, p.36). 따라서 학생들이

20) 환경권→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평등권·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사생활권→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순으로 나타났다.

21) 한편, 이러한 추정은 학생들이 경제적 권리를 중요시하는데 있어,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태도를 가늠하게 한다. 즉, 려씨의 임금(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나타난 상대적으로 높은 인권감수성의 평균점수는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경제적 권리의 주체로 인식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소수자를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소수자도 학생 자신들과 동일한 인권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의식해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와 같이 인권 항목별로 인권감수성을 분석한 연구로 주목할 만한 것이 공주시지역의 고등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2002)이다. 조사 시점의 차이를 감안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이 논문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먼저 평등권·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서귀포지역 고등학생이 공주시 고등학생보다 인권감수성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여 년 동안 민주화의 성장과 더불어 성 평등 의식이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그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체포·구속당하지 않을 권리에서는 서귀포지역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이 공주시지역 고등학생보다 낮았고 그 차이도 상당하다.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에서는 서귀포지역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이 공주시지역 고등학생보다 약간 낮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다음으로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에서는 서귀포지역과 공주시지역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은 비슷하게 나타났고, 사생활권에서는 서귀포지역과 공주시지역 고등학생 모두 인권감수성 수준이 매우 낮았으며, 특히 서귀포지역 고등학생이 공주시지역 고등학생보다 더 낮았다. 청소년 노동권에서는 서귀포지역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이 공주시지역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0년 동안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및 인권의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이다(여성가족부, 2011, p.261). 다음으로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과 환경권에 대한 서귀포지역과 공주시지역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서는 서귀포지역 고등학생이 공주시지역 고등학생보다 인권감수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서는 서귀포지역 고등학생과 공주시지역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이 비슷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서귀포지역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이 10여 년 전 공주시지역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1990년대 이후 인권, 인권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졌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논의가 더욱 확산되었다. 그러나 10여 년 전과 비교해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공주시지역 사례(국가인권위원회, 2002)와 서귀포지역 사례를 비교해본 결과 알 수 있었다. 이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학교인권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에서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학교인권교육은 하나의 체계적인 성격을 갖지 못하고 일부 교과 및 재량활동, 특별활동을 통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인권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인권교육의 방향과 인권교육의 틀이 정립되고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 또는 단위 학교 중심의 인권교육의 지역화가 필요하다. 즉 인권교육 운용 체제적 측면에서 지역 교육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인권교육의 내용 측면에서는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그 실정에 맞게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IV. 맺음말: 학교인권교육의 방향

지금까지 서귀포지역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을 중심으로 인권의식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인권교육의 방향 및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끝맺고자 한다.

먼저 서귀포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낮고, 특히 책임지각에서 인권감수성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강조된 학교인권교육의 성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 학교 현장에서 인권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동시에, 학교인권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행동적 영역에서 인권교육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논문의 조사 결과는 타 지역 학생들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을 조사한 기존 연구들의 분석 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다. 이는 수시로 개정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 속에 인권교육의 내용을 삽입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학교인권교육의 방향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립되고 실행되어야 하며, 학교인권교육이 공교육으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학생의 특성에 따른 인권감수성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문계 학생의 경우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 등 모든 영역에서 인문계 학생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계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이 보다 강화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이 낮았는데, 남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특히 행동적 영역에 대한 인권교육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성적에

따른 인권감수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성적이 하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수준이 중·상위권 학생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위권 학생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인지적 영역의 인권교육 활동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학생의 인권교육 경험은 인권감수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이 단기적인 이벤트성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향후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 논문의 조사 대상 학생들 중에서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한 학생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차원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인권교육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다른 한편, 인권 항목에 따라 인권감수성 수준을 살펴보고 이를 다른 지역 사례들과 비교해본 결과, 이 논문의 조사 대상 학생들은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권리 특히 경제적 권리 의식은 높았으나 자신과 무관한 대상이나 공익을 위해서라면 소수가 희생되어도 무방하다는 의식이 팽배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소수자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하고 이들을 자신과 동일한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행동적 영역의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반해 볼 때 앞으로 인권의 행동적 영역에 대한 교육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전문계 학생과 남학생 그리고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에 대해 인권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권리보다 타인의 권리 그리고 소수자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며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행동적 영역의 인권교육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지역들의 인권교육 실태와 이에 대한 비교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서귀포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국 차원의 연구와 함께 지역별 인권교육 활동에 대한 일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학생의 인권의식을 인권감수성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학교인권교육을 평가하고자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 앞으로 인권교육 평가도구를 개발해 학생의 인권의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보다 효과적인 학교인권교육을 위해 인권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의 교수·학습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구정화(2009).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인권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 48(1), pp.1-12.
- 구정화 외(2004).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구정화(1997). “사회과교육에서 ‘인권’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25(1), pp.95-116.
- 국가인권위원회(2002).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 \_\_\_\_\_ (2003).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 \_\_\_\_\_ (2004).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 \_\_\_\_\_ (2007). 『인권친화적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연구』.
- \_\_\_\_\_ (2008).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 연구』.
- \_\_\_\_\_ (2011).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 김덕진(2009). “의사소통기술향상구조 학습활동이 초등학생의 인권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학년을 중심으로”, 진주교대 석사학위논문.
- 김도환(2008). “고등학생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경기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 김원금(2007).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인권교육의 연계성 분석”, 『사회과교육연구』, 14(1), pp.185-211.
- 김자영(2011). “청소년 인권의식의 형성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6(2), pp.57-83.
- 김지호(2011).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 김한솔(2013). “인권의식이 문화간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법교육연구』, 8(2), pp.81-110.
- 김희정(2005). “사회과 법교육에 있어서의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 류지현·허창영(2008). “대학생의 인권태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인권태도의 인식수준”, 『민주주의와 인권』, 8(1), pp.175-210.
- 문용린 외(2002).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문용린(2003).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서울대 교육연구소.
- 박길자(2008). “사회과 인권교육 내용요소의 통합적인 구성 방안”, 『사회과교육연구』, 15(1), pp.1-24.
- 박봉규(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 인권의식의 관계”,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박상준(2003).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연구”, 『시민교육연구』, 35(1), pp.115-141.
- 박성혁(2001). “초등 사회과 인권교육의 발달과 원리에 관한 연구”, 『초등사회과교육논총』, 2, pp.105-124.
- 박영진(2006). “현행 도덕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 인권교육”,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 박용조(2003).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인권 관련 내용 분석”, 『사회과교육연구』, 10(1), pp.45-71.
- 박재숙(2008). “중학생의 인권민감성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박진(2002).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청소년 인권의식 표본조사 발표 토론회 자료집』, 수원: 다산인권센터.
- 배동욱(2001). “지역중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심성보(2002).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성태제(2010). 『현대교육평가』. 학지사.
- 심태진(2011). “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의식 비교”,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오승윤(2011). “고등학교 인권 교육에 관한 연구-‘법과 사회’ 수업을 위한 사례 개발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2007). “중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이혜원(2007). “중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학교사회복지』, 12, pp.47-75.
- 이세민(2009).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인식에 관한 연구”,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1999). “인권의식 발달경향에 관한 연구: 사형, 고문, 장애인 처우에 관한 추론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6(2), pp.103-120.
- 이용교(1998). “한국 인권교육의 현실과 대안”,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자료집』.
- 이주은(2012).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사회」 교과서 탐구활동의 재구성”,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이혜원 외(2009).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아동복지론 교과목의 개발과 효과성”, 『한국아동복지학』, 29, pp.73-96.
- 이혜원 외(2010).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인권감수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2(4), pp.149-170.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2007). 『제1회 인권교육워크숍 자료집』.
- 임용수(1994). “인권의 교육학적 의의와 인권교육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pp.179-194.
- 전미숙(2011). “초등 사회과의 인권교육 내용의 분석”, 전주교대 석사학위논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1). 『2012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 조윤정(2006). “고등학생의 인권감수성과 실제 인권 옹호 경향과의 상관성 조사 연구: 경기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조현민(2003). “고등학생과 교사가 인식한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 차경수·모경환(2008). 『사회과교육』. 서울: 동문사.
- UN(1948). 『세계인권선언』.
- (198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993).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 UNESCO(1974).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
- Amnesty International(이용교·이희길 역)(1996). 『인권교육의 기법』.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Babbie, E.(고성호 외 공역)(2002).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그린.
- Banks, J. A(1990).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tudies*, Longman.
- Bloom, B. S.(Ed.)(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 Classification of*



- Educational Goals. Handbook I: Cognitive Domain*, David McKay.
- Branson, M.S. and Torney-Purta, J(1982). *International Human Rights, Society, and the Schools*, Washington DC: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 Getz, I(1985). *Moral reasoning, religion and attitude toward human righ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Harrow, A. J(1972). *A Taxonomy of the Psychomotor Domain: A Guide for Developing Behavioral Objectives*, David McKay.
- Krathwohl, D. R. et al(1964).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Handbook II: Affective Domain*, David McKay.
- Lister, I(1991).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for education*. H. Starkey(Ed.),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education*, Cassel.



ABSTRACT

**The Tasks of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the Human Rights Sensi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gwipo, Jeju-do**

**Kim, Seon-Pil (Jeju National University)  
Yeum, Mi-Gyeong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a direction to upgrade the quality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This is based on human rights sensibility analysis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gwipo area, Jeju-do. The subjects were chosen 188 persons in the second-year students in five general high schools in Seogwipo area. This research made analyzed questionnaire, and next analyzed a data from it. The questionnaire made inquiries about variable of human rights sensibility and human rights sensibility analysis tools. The analysis used SPSS 12.0 for Windows. To find out this relation, the research questions below were set. The first question is what is the result of human rights sensibility of students. The second one is what are differences in human rights sensibility depending on characteristic of students. The third one is what is the result of human rights sensibility of students depending on each human rights category is included this study. The results in this article are like below. Firstly, there seems to be a little low level about human rights sensibility of students and perception of responsibilities is Specially low level. Secondly, there seems to be human rights sensibility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lower than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s it, boy students's it lower than girl students's it and low graded students's it lower than middle and high graded student's it. Additionally, there seems to be high level about human rights sensibility are related to themselves. But there seems to be low level about human rights sensibility aren't related to

themselves. The suggestions in the study are like below.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human rights education, because there seems to be low level about human rights sensibility of students. Specially, according to low level about the perceived perception of students, it is necessary to be interested in education about an action area. And, it is necessary to be very sensitive about human education for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boy students and low graded students are shown meaningful difference depending on characteristic of students. In addition, students must learn to recognize and respect rights of others and to act along those.

**Key words** : Human Rights Consciousness, Human Rights Sensibility, Human Rights Education, High School Students, Seogwipo-si

원고접수: 2013. 7. 31.    심사: 2013. 8. 5.~8. 20.    게재확정: 2013. 8. 25.

김선필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임. 인권교육 및 지역문제 등에 관심이 많다. [ksp0713@hanmail.net](mailto:ksp0713@hanmail.net)

염미경 : 현재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임. 현재 국가 간, 지역 간 이주와 다문화 관련 지역사회 연구를 해오고 있다. [mgyeum@jejunu.ac.kr](mailto:mgyeum@jejunu.ac.kr)